

성찰하는 삶, 우리 사회 희망을 찾다

글 · 이민하 sakpung702@nate.com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좋은 강연을 한다는 선배의 얘기에 참여해보겠다며 시작한 민주시민아카데미의 강좌가 벌써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다. 뜨거웠던 한낮의 태양빛을 느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긴 팔 옷을 꺼내 입어도 차가움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더해만 간다.

'민주시민'

왜 지난 정부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할 일에 대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은 어디까지 왔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민주시민이란 무엇일까?

요즘 내가 자주 가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정치인 카페가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된 카페이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깊숙이 관여를 했기에 그 카페가 만들어진 배경,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처럼 '모태자유'를 경험해왔던 세대들에게 지난해 광우병 사태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상당한 자신감과 함께 큰 좌절을 체험하게 했다.

하고 싶은 일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자라온 세대들에게 말을 했다고 잡아가는 세대는 너무도 큰 충격을 가져온 것 같다. 그런 충격을 가지고 있던 젊은 여성들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이후 좌절과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어 그 대단한 에너지가 요동을 치다 강연회라

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강연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돌아간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지금 그 카페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남성중심으로 돌아간 그동안의 정치인 카페와는 달리 당당하게 20~30대 여성임을 드러내며, 자기들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정치인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충격으로까지 표현을 하곤 한다.

나는 이들에게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본다.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의 소극적이었던 참여의 모습과는 달리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참여를 하는 모습에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아카데미에서의 강연은 좋은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의견들을 듣고 보며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봤다. 단지, 참여만 하고 자기의 목소리만을 내는 사람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준 분이 정관용 교수님이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강연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정관용 교수님의 강연뿐만이 아니었다.

정성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동서와 남북이 갈라져있는 갈라짐의 문제라든지 만족을 못



사업회 소식



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지나침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던 거 같다.

승효상 선생님께서 해주신 건축 이야기는 마치 어린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옛날이야기와 같은 감흥을 주었다.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생

각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완전히 깨는 말씀이었다. 독일의 전쟁기념관 얘기는 내가 얼마나 허상을 쫓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조국 교수님의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연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했는지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그동안 맹목적으로 기피한 건 아니었는지 반성을 하며 침팬지나 고릴라가 아니라 보노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김정남 선생님께 듣는 민주화의 시간들은 요즘 조금씩 후퇴하는 민주화에 대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었다. 암울했던 60~80년대 시대를 지내오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했다.

박석무 원장님으로부터 듣는 다산선생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선조들을 두었는지 그 자랑스러운 선조와 문화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갖게 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우리의 역사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반성하게 했다. 왜, 다산인가? 다산의 실용주의와 현 정부의 영터리 실용주의와의 비교는 가슴속을 시원하게 했다.


박원순 변호사님의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강연은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상황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더러운 것, 의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활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생활속 불편한 것을 개

선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유종일 교수님의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 위기극복의 길' 이라는 내용의 강연은 현재 우리사회, 더 나아가 세계의 경제위기가 그냥 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한 시간이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한겨레21>의 기사 제목은 우리시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척도가 아닌가 한다. 어느 뉴스의 인터뷰처럼 자기 자식이 외고를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외고폐지를 반대했을 거라던 글은 우리의 마음속 욕심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을 거라며, 큰 성취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작은 성취를 이루어내며 욕심을 버린다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은 우리 사회전체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민주시민되기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남들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사람들에게 치여야 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실망도 많이 하게 된다. 그래도 사람에게서 상처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 하고 다시 희망도 찾아야만 한다.

올 한해 나에게 가장 깊숙이 파고든 말은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이다. 불의를 보면 피하지 않고 맞서려는 노력,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민주시민아카데미에서 강연을 듣는 궁극적 목적일 것이다.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강연을 통해 배웠고 느꼈던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 대접받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꿔본다. 

글 이민하 | 2009 서울민주시민아카데미 제2기 참가자

사업회 소식

부마민주항쟁 기념 마산 전시회 개최



기념사업팀은 부마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마산에서 한국현대사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달 18일(일) 마산 삼각지공원에서 개최된 제4회 부마민주항쟁 전국하프마라톤대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해방부터 6·15남북공동선언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소개한 전시회에 대회에 참여한 마산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회는 주요 사진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전시물 <다이내믹 한국현대사>의 전시를 시민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문의 02-3709-7614)

부마항쟁30주년 및 부산민주공원 개관 10주년 기념식 참석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성유보 이사 등 임직원들은 지난달 16일 부산 민주공원내 민주항쟁기념관 중강당에서 열린 '부마항쟁30주년 및 민주공원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함세웅 이사장은 기념식에서 30년 전 부마항쟁 당시의 정신은 '부끄러움'이며, '부끄러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념식은 1부(기념 공연, 기념사, 축사와 민주시민상 수여), 2부(시대와의 대담 '부마민주항쟁 30년, 한국사회를 말한다')로 이루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서는 민주주의!'라는 전체 주제로 이루어진 부마민주항쟁 30년 사업은 기념식, 전시회, 대동굿, 풀뿌리 난장, 시민축구 축전, 전국민주가족등산대회 등으로 이루어진 기념사업·축제사업과 서울·부산의 전국심포지엄, 국제학술심포지엄, 부산사회포럼으로 이루어진 학술사업으로 구성되어 10월 내내 부산시내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부마민주항쟁 30년 기념 '민주가족등산대회' 개최



지난달 17~18일 양일간, 부마민주항쟁 30년을 기념하여 부산에서 '전국민주가족등산대회'가 열렸다. 이번 등산대회는 17일 오후 4시에 부산 구덕청 소년수련관을 출발, 해발 504미터의 엄광산 정상에서 낙동강과 부산항을 비롯한 부산의 전경을 조망하고, 하산길에 구봉산 봉수대에서 야경을 구경하면서 부산의 역사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듣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개최하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양시민모임, 5·18기념재단, 5·18동지회, 민기협, 천주교도시민민회, 7080연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주거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운동공제회, 민족문제연구소, YMCA, 민평련, 민불련과 부산의 파르티잔산악회 등 전국의 민주화운동관련 단체에서 360여 명이 참여했다. 등산대회 참가자들은 야간산행을 마친 후 부마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공원을 방문하여 각종 행사와 전시관을 둘러본 다음, 부마항쟁을 재현한 민족극 「시월연가」를 관람했다. 또한 18일에는 역사다시읽기 시리즈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저자 소설가 김하기 씨의 안내로 부산대학교의 부마민주항쟁기념탑, 10·16기념관 등 민주화운동관련 시설물을 탐방했다.

한독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참석



지난달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한독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교육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독일연방정치교육원 국장, 콘라트아데나워재단 소장, 기센대학 교수 등 정치, 경제, 학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사업회에서는 신형식 기념사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평가와 체계화'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이틀간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적 무관심과 민주시민교육 ▲다문화사회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영역과 과제 ▲민주시민교육의 평가와 체계화를 중심으로 양국의 다양한 사례와 향후의 과제를 공유했다.

사업회 소식

함세웅 이사장 등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석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유영표 상임 부이사장 등 임직원은 지난달 22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안중근 의사가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리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00년 전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신 참된 자유독립국가의 건설과 동양의 평화에 대한 사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우리 세대의 노력에 대해 말했다.



구술사 워크숍



사업회 사료관은 지난달 23일 1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구술사연구소를 비롯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등 구술사 수집 및 연구를 수행하는 27개 단위가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카이빙, 만화, 전시, 영상, 역사교육, 웹콘텐츠 등 6개 분야에서 구술기록이 활용된 사례발표를 통해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영역에서 구술사를 수집, 연구, 활용해온 참석자들은 새롭게 접하게 된 구술사 활용사례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김은성 작가의 어머니 구술을 활용한 만화출판 사례에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구술사 수집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전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구술사 현안해결 및 연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부마항쟁 30주년 기념 전국학술심포지엄 개최



기념사업회 연구소는 지난달 9일(금) 한국기독교교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의 민주주의사회연구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마산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전국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정희 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부마항쟁의 전국화와 역사적 맥락 찾기'라는 취지에 걸맞게 여러 지역의 저명한 관련연구자들이 부마항쟁과 관련한 연구와 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10월 중에 계획된 부마항쟁 30주년 기념행사의 포문을 연 첫 공식행사이기도 한 이날 심포지엄은, 이규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윤광장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가 기초발제('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를 맡았다. 이후 김상봉(전남대, '부마항쟁의 정치문화적 성격'), 정태석(전북대, '부마항쟁의 주체세력과 성격'), 한홍구(성공회대,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이은진(경남대, '한국민주화와 지역의 역할') 교수가 각각 부마항쟁과 관련한 다채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이 밖에 토론자로는 정근식 사업회 연구소장과 정성기 부마항쟁기념사업회장(경남대),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김동춘(성공회대), 조정관(전남대) 교수가 나섰으며 이날 사회는 차성환 민주공원 전 관장이 맡았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국심포지엄이라는 취지에 맞게 250여 명의 방청객이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일시적인 지역운동이라는 세간의 인식에서 벗어나 유신체제의 붕괴와 5·18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화 역사의 중요한 한 고리로서의 부마항쟁의 전국적 위상과 역사적 맥락을 재검토해보는 유의미한 자리가 됐다.

◎ 알려왔습니다

박흥도 선생님께서 10월호 사업회 소식 민주화운동 관련시설 탐방 "전남 영광·목포·해남지역"편(39쪽)에 실린 내용 중 목포대학교 자주탑과 관련하여 "자주 민주 통일비는 본래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 건립된 비였는데 그 자리에 정보종합센터를 짓기 위해 학생회관 옆 도로 중앙으로 옮겼다가 2005년 1월 현재의 학생회관 앞으로 이전하였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11월 주요 일정

◆ 2009 나눔의 김장 품앗이 행사

11월 20일(금) 우리 사업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강제연행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징용징병 피해자들을 위한 나눔의 김장 품앗이 행사를 개최한다. 민주화운동 참여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과 함께 충북 충주 월악산 자락에 있는 공이리에서 직접 김치를 담아 민주화운동 가족과 독거노인들에게도 김장김치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다. 김장재료는 산지에서 직접 구입한 100% 우리 농산물로 김장비용과 인력은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 진다. 우리 사회의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현실을 돌아 보는 뜻 깊은 가을 나들이가 될 것이다.

• 행사문의 : 기념사업팀(02-3709-7612)

• 구입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김영선 02-969-0226 / 010-7757-9733 / blue1967@korea.com)

◆ 『제3차 풀뿌리운동 활동가교육』개최

- 일정 : 2009년 11월 3일(화)
오후 1시~7일(토) 오후 1시 (총 4박5일)
- 장소 : 파주 흥원연수원
- 대상 : 주민자치운동,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사회복지운동 등에 관심 있는 활동가 (경력 3년차 이상의 중견활동가)
- 문의 : 은영준(교육사업팀 / 02-3709-7622 / yjeun@kdemo.or.kr)

◆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교사연수

- 일정 : 2009년 11월 14일(토)~15일(일) ※휴업 토요일
- 장소 : 봉도 청소년 수련원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 대상 :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 24명
- 내용 : 민주시민의 핵심역량 중에서 관계의 기술을 중심으로
- 문의 : 최지윤(교육사업팀 / 02-3709-7624 / 3design@kdemo.or.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8주년 기념식

- 일시 : 2009년 11월 12일(목) 10:30
- 장소 :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사업회 임직원
- 내용 : 기념식 개최, 특별 강의

◆ 2009 민주시민교육 단체 워크숍

- 일시 : 2009년 11월 19일(목) 오전 12시
- 장소 : 도봉 숲속마을 (서울시 도봉구)
- 대상 :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단체 관계자 30~40명
- 문의 : 조철민(교육사업팀 / 02-3709-7625 / free@kdemo.or.kr)